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COP28' 양보 했나

김희재 "정부 2023 COP28 양보 결정 강력 규탄"

국가계획 승인해 놓고 모순된 결정...입장 밝혀야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를 양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은 20일 정부가 2023년 열리는 COP28 개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

한데 대해,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과 유치 양보로, 13년간 이어져온 전남과 경남도민의 염원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한 유감을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계획으로 확정됐을 때 12개 시·군을 비롯한 전남과 경남도민은 크게 환영했다"며 "이번 양보와 관련,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를 얻기 위해 COP28 유치를 포기했다면 양 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COP28은 13년 전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민이 남해안·남중국 유치를 최초 제안하고, 그 제안과 요청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까지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 10월7일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에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과 10일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면서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계획으로 확정해놓고도 정부가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이고,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저버린 정책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COP28 유치 무산에도 불구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국권은 앞으로도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면서 차기 대선공약 반영 등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COP28 남해안·남중국 유치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신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여수시민을 비롯한 남해안·남중국권 12개 시·군민들과 함께 그 소중한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후위기대응 선도지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유치를 추진해 온 COP28을 아·태지역 내에서 경쟁을 벌여온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하는 대신, 33차 총회(COP33) 유치로 방침을 선회했다.

/김진수기자



수창초교 앞 육교 본격 철거 광주 북구 북동 수창초등학교 앞 육교의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일 오후 관계자들이 주요 구조를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북구는 사고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육교를 이날 오후부터 해체 작업에 돌입, 21일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한편 1972년 12월 29일 설치해 48년 된 이 육교는 지난 18일 오전 짐게 차(너클 크레인)가 육교 교각과 충돌하면서 파손됐다. /김애리기자

출향도민 대상 '전남사랑도민증 응원 릴레이' 돌입

도의회·22개 시군 확산...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전남도가 출향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전남사랑도민증' 신청·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전남사랑도민증 응원 릴레이'에 나섰다.

전남사랑도민증은 출향도민을 예우하고 이들의 애향심·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7월 12개 광역향우회와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업무협약을 하고 1호 도민증을 발급,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발급 대상은 등록 기준지가 전남이고 현재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배우자·직계비속 포함)이다. 신청은 전남도 누리집 (<http://www.jeonnam.go.kr>)과 우편(전남도 자치행정과) 등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참여와소통-전남사랑도민증)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출향도민은 전남 주요 관광지 및 숙박·레저시설 등 할인 가맹점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현재 할인 가맹점 77개소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사랑도민증 응원 릴레이'는 전

남사랑도민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사업 홍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에서 시작해 도의회, 22개 시·군, 12개 광역호남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확산하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경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사랑도민증은 출향도민에 대한 예우를 넘어 이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기반으로 전남 미래 발전을 견인할 밑거름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남사랑도민증 사업이 자리잡도록 응원 릴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알리고 발급 유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인 가맹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 의료산업 유망기업에 투자하세요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국내외 투자의향기업 등 참가

광주시는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증 받은 지역 유망 의료산업분야 업체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의료산업분야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에 광주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이 지원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 의료산업분야 유망기업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추진했다.

설명회는 ㈜시지바이오, 에이젠썬, 에이치디티, ㈜링크옵틱스, ㈜디엑스엠 등 5개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외 34개국 130여명의 투자의향기업과 바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투자유치전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투자환경 소개, 기업별 투자프로젝트 발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지바이오는 의료용품 및 기타의 약관련제품 제조기업으로 전 세계적으

로 가장 권위 있는 인체조직 표준기구인 미국조직은행연합회의 인체조직 가공업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에이젠썬은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생산 제조기업으로 성조속증 치료제 및 아노지치료제 펩타이드(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인공적, 자연 발생적으로 연결된 중합체)를 국내·외 인허가를 통해 전문 의약품 공급해 오고 있다.

에이치디티는 휴대용 방사선 장비 제조기업으로 지난 8월 정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승인받아 국내 최초로 야외에서 사용 가능한 엑스레이를 제조한 업체다. 특히 에이치디티의 제품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응급·재난 상황에서도 야외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링크옵틱스는 광융합 미용·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레이저 및 LED등 인공광원 기술로 광융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로 광의료분야 9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디엑스엠은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 국

내 최초로 치과용 믹싱팁(치아를 분할 때 사용하는 인산재를 혼합해 주입할 있게 하는 의료 도구) 자동 조립라인 개발을 성공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해외 투자의향기업과 바이어들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용품 제조 및 의약품 관련 기술을 보유한 지역 의료산업분야 유망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광주시는 코펜하겐과 브뤼셀 등에 소재한 투자의향기업과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이달과 오는 12월에 1대1 매칭 투자상담회를 후속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시의 주요 산단 4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분야를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광주만의 경쟁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투자자로 광주 선택이 후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청소년 경찰학교 통합센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광주자치경찰, 관계기관 협력사항 논의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추진 등 관계기관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여성·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경찰학교 통합센터

신설 방안' 등과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했던 어린이 통행로 보행공간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공모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화포그램 지원사업에 공모하고, 선정

시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치안현장 주취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센터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제한 속도 운영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사항을 요청했다.

오운수 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결합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상승 효과"라며 "실무협의회에서의 협업과 개선사항 논의로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자전거도로 달려도 될까?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 2020년 2월 16일 이후 제작되어, KC인증을 받고 정식 통관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 2** 2020년 2월 16일 이전 제작되어, KC인증을 받고 정식 통관된 제품 중 일부 모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 주치 |
 광주매일신문
|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CITY NAMGU
 GTCI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Kwangju Metropolitan City Traffic Training Institute
 한국교통안전공단
 롯데쇼핑(주)

CMYK